



2024
VOL.02

지식공유 브리프



개발협력/지식공유 이슈톡

기후 문제에 대한 개도국의 시각



디지털헬스케어의 중요성 및 지식공유의 의미



개발협력/지식공유 동향 분석

국내 수소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의 지식화와 수도이전 국제협력 추진방안



KSP 포커스

[2023/24 칠레 KSP]

병원 대기 끝에 죽음이 아닌,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CID 연구포커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ESG,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역할 및 정책과제



소식

YKSP 출장 소회 서면 인터뷰



행사

KDI-세계은행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을 위한 세미나 개최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후 문제에 대한 개도국의 시각



23/24르완다 KSP사업 수석고문

정홍상

hsjung2@gmail.com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온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국제사회가 기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초였으니 벌써 삼십년이 넘었다. UN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과 협의체(FCCC)를 만들어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 기후 문제 해결의 어려움

기후 문제는 왜 이토록 해결이 어려울까? 무엇보다도 기후 문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이슈라는 점이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협력하여 함께 노력하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다. 이는 온실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대기가 지구 표면을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트기류는 중위도 지역의 상공에서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서에서 동으로 돈다. 그래서 한 국가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폐해는 전세계가 함께 겪어야 한다.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와 산업 기술이 이백여년에 걸쳐서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에너지와 산업 기술로 전환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은 국가적으로 결국 산업의 제조원가 상승과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개별 정부의 입장에서는 선뜻 배출 감축에 나서기를 꺼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다들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감축하고 자기 나라는 이러한 비용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이 경우에도 다른 국가들의 감축노력 덕분에 그 혜택—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해수 상승 등의 피해 감소—은 여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제 이슈가 두 나라 간의 협상이면 그래도 비용-편익이 뚜렷하고 상호 감시도 어렵지 않으므로 해결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백 개 정도의 국가들이 저마다의 비용-편익의 셈법도 다르고 상호 감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피해는 수십 년 내지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가시화된다. 전 세계가 몇 년 동안 감축노력을 집중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바로 나아진 기후를 체감할 수 없다. 또 몇 년 감축노력을 게을리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가까운 미래에 바로 가시화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각 나라의 정부는 세금 수입을 늘리기는 어렵고 지출 수요는 넘치는 상황 하에 있다. 이런 상황에

개발협력
지식공유
이슈 톡

서 경기 진작, 실업 완화, 복지 확대 등의 당면한 과제를 짓혀 놓고 감축에 더 재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구표면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이미 섭씨 1.1도가 올랐다(표1 참조). 파리협정에서 목표로 했던 2100년 섭씨 1.5도 이내 억제 의 2/3정도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섭씨 1.5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기간에 각 국가가 그만큼 감축노력을 더 강화해야 하며, 이제는 2도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 각 국가들의 서로 다른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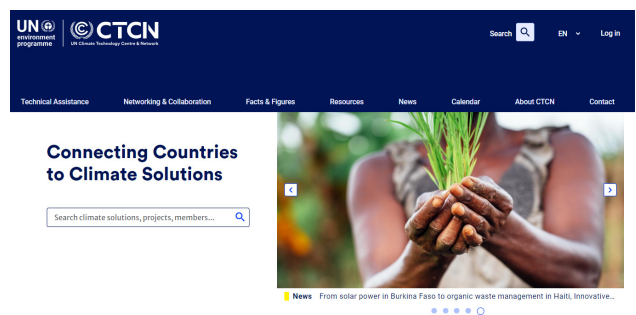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실제 대응에 있어서는 개별국가 별로 차이가 많다. 우선 지리적 위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태평양 작은 섬나라들의 경우 산업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아서 배출은 미미하지만 피해는 크다. 해수면 상승으로 몰디브나 투발루 같은 나라의 경우 수십년 후에는 바다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반면에 위도가 높은 지역은 기후가 온난해지면서 농작이 가능해지는 등 유리해지기도 한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게 되면 중동이나 남미의 산유국 경우 매장된 자원의 시장가치가 떨어지고 외채의 차입 금리도 상승할 것이다. 각 나라의 이해 정도에 따라 국제적 합의에 대한 지지 강도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경제 여건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서 감축에 있어서 적극-소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는 사실 집권세력을 표로 결정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결과인데, 예를 들어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후변화에 쓸 국가재원을 돌려서 경제 살리는데 써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해지기 때문이다.

● 개발도상국들의 시각

개발도상국들도 각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개도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해는, 온실가스는 역사적으로 선진국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배출한 결과이므로 선진국들이 책임을 져야 하며, 따라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을 선진국들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후는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량(flow)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대기 중에 쌓여 있는 저장(stock)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서구의 산업혁명 이후 이백여년에 걸친 산업화과정이 주된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진국들도 이견이 없다. 그래서 현재의 기후변화 협상의 큰 틀은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여 짜여져 있다. 기후재원은 선진국들이 월드뱅크나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GIF, GCF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서나 또는 각 국가의 개별 지원기관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기후관련 기술은 CTCN(Clima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GTC(Green Technology Center)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그림 1 참조). 23년말에 있었던 당사국총회(COP) 28에서는 개도국의 오랜 요구 사항이었던 손실과 피해보상에 대한 기금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그림 1] UN CTCN 의 공식 홈페이지



자료: UN Environment program



기후협상회의에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선진국들이 재원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하고 기술이전도 실효성 있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개도국들은 정부의 전반적인 재원 부족 때문에 상시적으로 원조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므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추가적인 지출 수요는 추가 재원이 지원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부정 등의 낭비가 없음을 보여 주기를 원하며, 또 책임감 있게 사업을 집행하여 성과를 만들어 내어 달라고 주문한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의 납세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지원하는 돈이 낭비 없이 사용된다는 점과 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민간자본 유인을 위한 고려도 있다. 선진국들이 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려 하는데 그러려면 민간 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대한 줄여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으로 선진국들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과도하게 지원 조건(conditionality)을 부과하여 개도국들의 불만을 사기도 한다. 선진국들의 입장에서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원 조건을 부과하겠지만, 사실 지원 조건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사회 제도 운영의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 즉,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 방지를 위한 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설계와 운영, 지배구조(governance)의 발전과 실효성 있는 운영, 회계감사의 품질 향상,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제도 운영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하여 지원조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편 개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감축과 적응 정책중에서 적응에 주된 관심이 있고 선진국의 지원도 적응쪽으로 대

부분 요구한다. 적응정책은 기후재해로부터의 국민 안전, 인프라 건설, 농업 지원 등의 국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와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도국 입장에서는 기후 대응을 명분으로 개도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개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2015년 파리협약에서 배출을 줄여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감축에는 큰 관심이 없는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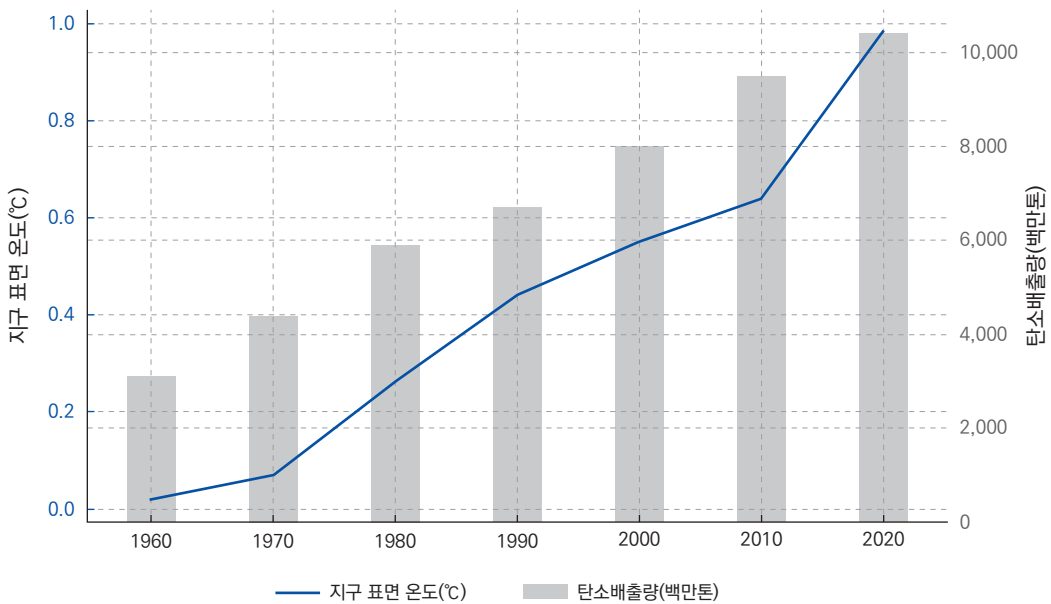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97년에 합의되었던 교토 프로토콜에서 선진국에 대해서만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기후변화가 주로 선진국들의 산업화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이해가 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 이후에 중국과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산업화에 따라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국으로 부상하면서 지난 2015년 파리 합의에서는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들도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선진국들에 비하면 개도국들의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기들의 장기 정책 비전에서 제시하는 주요 정책 어젠더를 살펴 보면 온실가스 감축은 거의 찾기 어렵다. EU,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의 선진국에서 그린 딜, 녹색 성장 등을 국가적 어젠더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지식공유사업의 대상국인 르완다의 국가장기계획인 “비전 2050”을 살펴보면, 인적 자원 개발, 산업경쟁력 향상, 농업 발전, 도시 발전, 국가기관 혁신 등을 중요한 축(pillar)으로 열거하고있다. 경제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읽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다수의 국민이 빈곤계층인 개도국의 경우에 경제개발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에 관심과 국가적인 역량을 쓸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최선의 환경보호는 경제성장을 통해 적절한 소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Jack Hollander, "The Real Environmental Crisis"). 우리나라의 개발과정을 돌이켜 보더라도 60~70년대까지는 소득 향상에 집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나 환경에는 소홀했었다. 소위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에 다다라야 비로소 환경에 대한 관심과 보호 노력도 생기는 것은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 **맺으며**

기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까지 포용해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다. 개도국들의 경제개발에 대한 우선순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경제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IPCC의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climate-resilient development이어야 할 것이다. 또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과 기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전반적인 사회적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런 면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본다. 한국은 빠른 기간 내에 사회적 인프라를 개도국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식공유사업은 기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그림 1] 지구표면 온도 및 탄소배출량(1960 - 2022)



자료: NASA, 2023



디지털헬스케어의 중요성 및 지식공유의 의미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강재현

jaecheon.kang@samsung.com

48세 A씨는 2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 동네 의원에서 경구혈당강하제를 처방받아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간식을 자주 하는 등 식사 관리가 잘 안되고, 야근이 많아 운동을 거의 못 하다 보니 약물 복용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되어서 고민이었다. 그러던 중 주치의의 권유로 혈당측정기 연동형 혈당 관리 앱을 통해 혈당 관리를 위한 식사와 운동에 대해 관리받으면서 혈당이 적정 수준으로 떨어졌고, 2~3달 후에는 경구혈당강하제의 복용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와 유용성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용어의 정의는 기관이나 연구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2019)는 정보통신기술(ICT)과 헬스케어가 융합된 산업으로, 빅데이터, AI 등의 ICT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환자 맞춤 의료 서비스와 환자·일반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관리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¹⁾ 화상, 전화, 채팅, 이메일 등을 통해 질병을 진단·처방하는 원격진료와 환자의 건강 및 임상적 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하는 원격모니터링, 원거리에서 로봇을 활용하거나

의료인 간 협진을 통한 수술 등의 원격수술이 모두 디지털헬스케어의 영역에 포함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연구진이 실시한 디지털헬스케어의 성공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으로 강북삼성병원과 휴레이에서 개발한 일차의료기반 만성질환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 및 실증한 바 있다. 환자는 모바일 앱에 건강정보를 기록하고 일차의료기관에서는 이를 모니터링하는 웹을 개발하였고, 운영매뉴얼을 제공하였다. 총 8개 의원에서 6개월간 당뇨 및 고혈압 환자 1,000여 명을 실험-대조군으로 분류하여 평가한 결과, 질병 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에서의 효과성이 검증되었으며, 만족도 및 경제성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2022년에는 보건산업진흥원 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시범사업을 통해 베트남 내 비대면 협진 시스템을 확산하여 베트남 의료소외지역의 건강증진과 질병 관리에 큰 도움을 주었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전 세계 122개국 189개 재외공관 7,000명의 공관원 및 동반가족, 8개 기업 해외 파견 및 출장자

1 이경은. 국내 디지털헬스케어의 발전 방향. AI Trend Watch, 2021.

24,1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헬스케어는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을 줄여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대면 서비스에 비해 더 많은 사람을 관리해 줄 수 있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각 개인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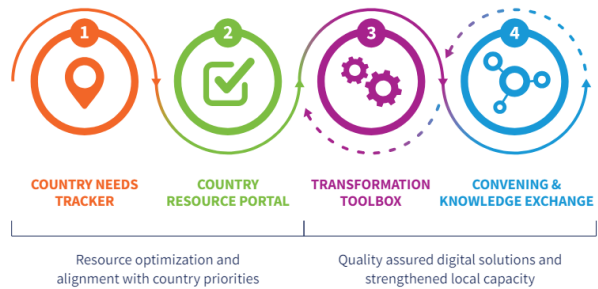
● 개도국에서 디지털헬스케어의 역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건강 인프라 구축과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지원이 부족하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의료 시설, 의료 인력, 의약품 공급 등의 보건 인프라가 미비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자원이 부족하여 전염병 대유행에 더욱 취약하다. 병원의 건축과 운영, 의료 인력의 교육과 임금 등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적인 의료 지원도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건강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어렵다.

2023년에 세계보건기구는 디지털헬스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on Digital Health; GIDH)를 출범하였다. GIDH는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디지털헬스케어를 강화하기 위한 단합된 노력을 의미한다. GIDH는 세계보건기구가 감독하는 네트워크로 운영되면서 디지털헬스케어의 국제표준을 통합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하며 필수적인 자원을 공급하는 필수 플랫폼을 제공한다. 세계보건기구는 GIDH에서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의 디지털헬스케어 역량을 높이

고 수준 높은 디지털헬스케어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그림 1 참고).

[그림 1] GIDH의 4가지 기본핵심



자료: Global Initiative on Digital health

디지털헬스케어의 한 분야인 원격진료는 개발도상국에서 보건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의료 혜택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GIDH는 디지털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식공유와 협력을 장려하며,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접근을 옹호하고,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가속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²⁾

● 디지털헬스케어 지식 공유사업의 필요성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이다. 한국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기술적, 산업적, 의학적, 규제적으로 가장 빠르게 발전한 국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았던 한국의 디지털헬스케어 발전

2 <https://www.who.int/initiatives/gidh>

개발협력
지식공유
이슈 톡

경험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여 당면한 보건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도모하는 개발협력은 큰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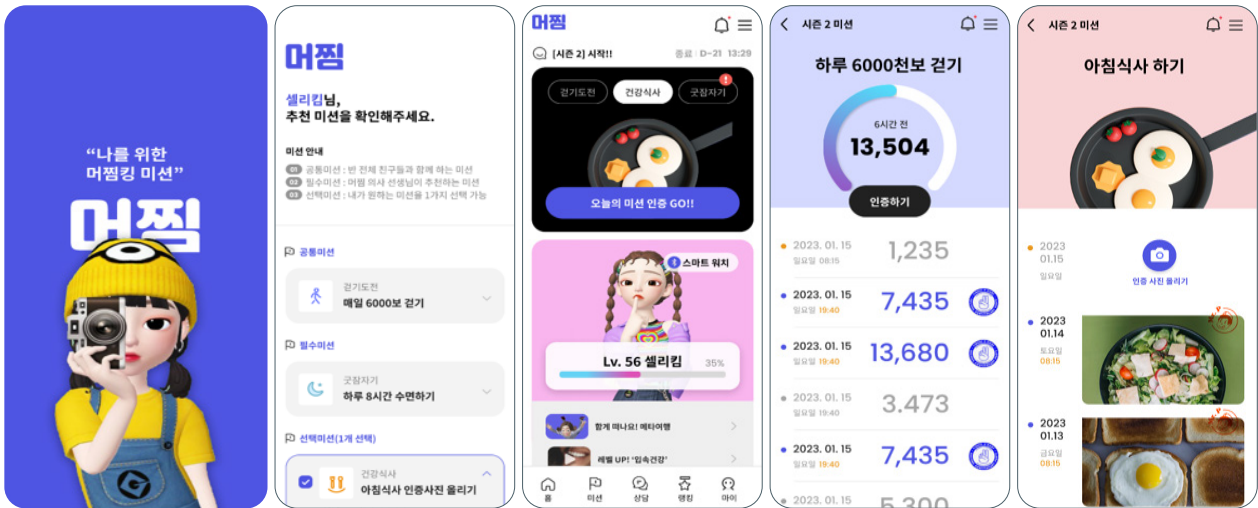
환자 감축 및 의료접근성 개선 등 3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칠레 의료기관 대기환자 감소와 일차의료기관 만성 질환 환자 관리의 질적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헬스케어 지식공유의 사례

2023년에 칠레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우리 정부에 공공의료서비스 디지털화 등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을 요청했고, 강북삼성병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 「ICT를 활용한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모델 구축 및 고도화」과제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① 질병 예방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그램 도입, ② IT 기술을 활용한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환자 관리의 질적 향상, ③ 1~3차 의료기관 협업 시스템 효율화로 대기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지식공유사업은 지식의 공유와 상호 협력, 그리고 탄탄한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구축을 통해 보건 의료 문제 해결을 원하는 국가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개인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하여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 -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앱



자료: 저자작성



국내 수소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



산업연구원
이슬기
sulkilee@kiet.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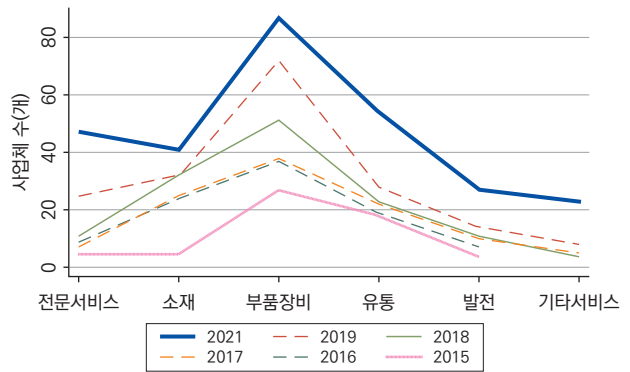
수소산업은 에너지의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산업 및 수송 분야의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며, 새로운 녹색 신산업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주목받고 있다.

● 국내 수소산업 현황

수소산업의 가치사슬을 전문 서비스-제조(소재, 부품·장비)-유통-발전-기타 서비스로 구분하여 2015~2021년의 경제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사업체 수는 2015년 58개에서 2021년 279개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나 2021년에도 여전히 산업 발전 단계상 태동기에 머물러 있었다. 사업체 수의 관점에서 수소산업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성장했고 그중에서도 전문 서비스와 소재의 상대적 비중은 더욱 빠르게 확대됐다. 분석 기간 전체에 걸쳐 수소산업 내에서는 부품·장비 제조업에 가장 많은 사업체가 분포했으며, 제조업의 비중은 분석 기간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2021년에 유통, 전문 서비스 등의 상대적 비중 증가로 인해 46%로 감소했다(표1 참조).

〈표 1〉 수소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사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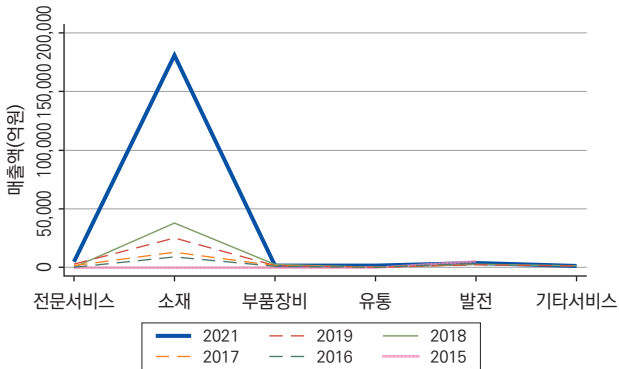
자료: 이슬기(2023),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적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 KIET 산업경제 11월호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매출액은 소재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소수의 대형 사업체에 의한 것으로 유추된다. 수소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이전인 2015년에는 대다수의 매출액(약 85%)이 발전산업에서 발생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 등으로 인해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는 매출액을 일정 부분 발생시킨 반면, 발전사업 외의 다른 수소산업 생태계는 국내에서 아직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6년부터 제조업 및 전문 서비스업, 유통업 등에서 급격한 매출 성장이 이루어졌다. 앞서 설명했듯이 소재산업 매출액의 폭발적인 성장은 거

개발협력
지식공유
동향 분석

대 사업체 한두 곳에서 수소산업에 진입한 데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수소산업이 더는 2015년과 같이 발전사업자 위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이 되면서 소재산업의 독주는 더욱 두드러졌다. 2016년 66.8%에서 2019년 75.8%까지 지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오던 소재산업은 2021년 전체 수소산업의 94.2%까지 성장했다(표2 참조). 이는 SK, 포스코 등 국내 17개 기업이 민간 수소 기업 협의체인 'H2서밋'을 결성하며 수소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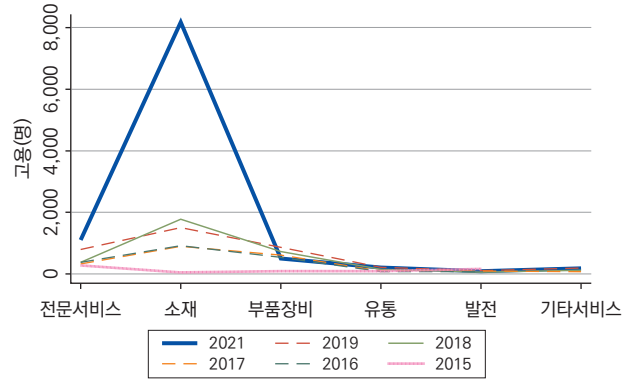
〈표 2〉 수소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매출액



자료: 이슬기(2023),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적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 KIET 산업경제 11월호

고용에서도 매출액과 비슷한 패턴이 관측되었다. 즉, 2021년 소재 부문 대기업이 수소산업에 참여함으로써 소재산업의 고용 비중이 80.3%까지 확대되었다(표3 참조). 소재산업을 제외하면 2021년의 특징은 전문 서비스의 약진, 발전업의 성장 정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소재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사슬 내에서의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 중 부품·장비 제조업은 사업체 수가 많은 것에 비해 매출액은 낮았으나 고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부품·장비 제조업의 매출액과 고용 비중은 각각 20.3%, 39.6%였으며, 2021년에는 이 수치가 각각 14.1%, 24.7%로 변화했다. 사업체당 평균 고용은 소재산업이 가장 높으며(2021년 기준 사업체당 199명), 전문 서비스(23명)가 그 뒤를 잇는다.

〈표 3〉 수소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고용률



자료: 이슬기(2023),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적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 KIET 산업경제 11월호

수소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

수소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더 넓은 시장에 대한 접근과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그린수소의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 수소산업의 확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린수소는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지리적 불일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주요 수요 지역인 한국, 일본, 유럽과 주요 생산 지역인 중남미, 호주, 중동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수전해 기술을 보유한 유럽과 일본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여러 국가에서 그린수소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의 수소 수요 중 80~82%를 해외에서 도입할 것을 계획했다.¹⁾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자원은 부족하지만 수소산업 기반을 갖추었으므로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상호 유익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소 법제화 및 정책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칠레와 같은 수소경제 전환 국가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 산업의 육성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의 지식화와 수도이전 국제협력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방 설 아
sab@krihs.re.kr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에 대한 해외국가의 협력요청 증가

수도(capital city)란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의 핵심 도시로 인구와 자본이 집중되는 국부 창출의 중심지이고, 수도이전(capital relocation)은 수도의 핵심 기능 전체나 일부를 다른 도시로 옮기는 행위를 뜻한다. 수도이전을 시도하는 이유는 기존 수도의 팽창과 과밀, 환경오염과 자연재해, 수도의 입지적 불균형 등 현상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도 있지만, 새로운 경제개발의 동인 필요나 정권 유지의 필요성 같은 배경도 있다. 1945년 이후 브라질,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독일, 말레이시아 등 약 20개 국가가 수도이전을 추진해 왔다. 수도이전은 일반 신도시 건설보다 훨씬 복합적이며, 앞선 사례를 비추어 보면 단계마다 유사하게 발생하는 장애요인이 있다. 예를 들어, 초기 단계에 수도이전 정책 및 입지 선정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 확보, 추진 단계에 개발재원의 조달과 추진 조직, 동시에 수도이전 이후 기존 수도지역의 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여러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개발을 통해 수도이전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실현,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핵심 사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유형으로 만들어진 도시이다.²⁾ 행복도시는 2005년에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행정수도 기능을 갖춘 도시 건설을 목표로 현재 3단계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해외 사례에서 초기 단계에 목표를 중단하거나 미달성한 경우가 다수 있음에 비해, 행복도시는 행정부처 이전, 도시 인구 유입, 자족도시 환경 조성 측면에서 건설 1단계 개발 목표를 거의 달성하였다.

최근 인도네시아, 몽골, 이집트 등 최근 수도이전을 시도하는 국가들이우리나라 수도이전 경험에 대한 역량강화 및 정책컨설팅 등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의 주무 부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집트, 몽골, 탄자니아 등 국가로부터 수도이전 전수·교류에 대한 협력을 요청받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수도이전 글로벌

1 본 원고는 "방설아, 김민지, 정유진. 2023.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임.

2 건설교통부.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개발협력
지식공유
동향 분석

별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행복도시의 실행관리와 목표 달성 방법은 오늘날 수도이전을 시도하는 해외국가에서 알고 싶은 노하우이며, 글로벌 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그림 1] 수도이전 경험에 대한 지식공유 요청 및 약정 체결 현황



자료: 방설아 외, 2023.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 2P. 국토정책 Brief. 세종: 국토연구원

국제협력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식화 프레임워크

행복도시 건설경험을 공공외교의 소프트파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류할 수 있는 지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국제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는 수도이전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경험을 종합적으로 구조화한 지식 틀이다. 가로축은 건설 단계 시간 축으로 논의 단계, 준비 및 계획단계, 건설 1단계, 2단계, 3단계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세로축은 행복도시 지식화 요소의 주제를 나열한 축으로, 배경 및 법제화, 입지 선정과 토지수용, 정부 부처 이전 등 건설 과정의 주요 행위를 구분하였다. 두 축이 만나는 부분을 '지식화 모듈'로 정의하며, 수도이전 국제협력의 사업 단위로 개발할 수 있다.³⁾

<표 1>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 개요와 연구범위

단계 / 주제	논의 단계 (1977-2003년)	준비 및 계획 단계 (2004-2006년)	행복도시 건설 1단계 (2007-2015년)	행복도시 건설 2단계 (2016-2020년)	행복도시 건설 3단계 (2021-2030년)
1. 추진 배경 및 법제화	① 정책 결정				
			② 법제화		
2. 입지 선정 및 토지 수용			③ 입지 선정 및 지구 선정		
			④ 토지 수용/보상		
3. 정부 부처 이전			⑤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이전		
			⑥ 공무원 이주		
4. 도시계획			⑦ 주요 계획 수립		
			⑧ 공모제도 시행		
5. 도시 건설 및 운영			⑨ 건설/관리		
					⑩ 도시 운영
6. 이행기반			⑪ 조직 구성		
			⑫ 재원 조달		
7. 주변 지역 상생 및 자족기능 확충			주변 지역 관리 및 광역교통체계 확충		
					첨단산업단지 조성
8. 첨단도시 조성기반 마련					스마트도시 구축
					저탄소 친환경도시
9. 기타					주민복지 확충
			기존 수도 관리		

주: 본 연구의 주요 범위는 파란색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의 내용임.

자료: 방설아 외, 2023.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 3P. 국토정책 Brief. 세종: 국토연구원

대표적으로 네 번째 주제인 도시계획은 초기 단계에 추진되는 과제로 장기간, 대규모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의 일관성, 체계성,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핵심 모듈이다. 그중 건설기본계획은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19조에 근거해 개발의 초기 단계에 수립한 법정계획이다. 건설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이후 계획의 준거가 되고, 도시개념 국제공모 결과를 반영해 '환상형 도시(rign city)' 개념을 담았다. 도시의 공간구조 계획뿐 아니라 주거, 환경, 도시, 교통, 교육, 문화 등 부문별 도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건설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 원주민 보상 및 지원 대책, 개발 주변 지역의 관리와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대책, 부동산시장 안정

3 본 보고서에서는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 내의 12개 모듈에 대한 행복도시 개발 경험을 정리하였고, 이를 국제협력을 위한 지식화 관점에서 교훈과 협력과제 요소로 정리함

개발협력
지식공유
동향 분석

대책까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연구총괄 기관으로 참여하고 학회 및 국책연구기관이 부문별 계획에 참여하여 약 16개월 동안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개발 계획, 실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 후속으로 추진되었다.

[그림 2] 행정중심복합도시 주요 계획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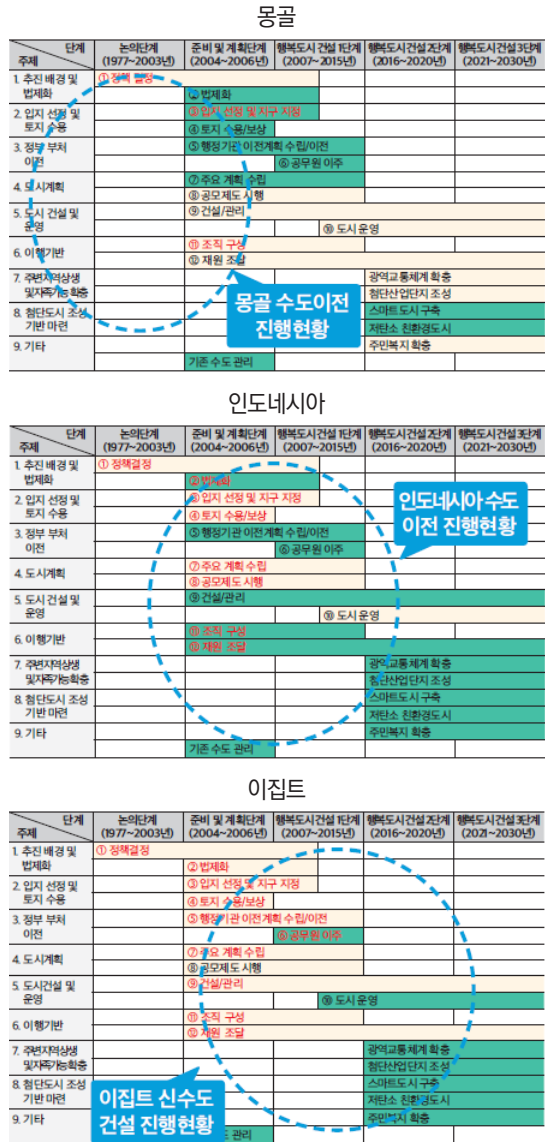
자료: 방설아 외, 2023.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 p.75.

자칫 도시계획을 마스터플랜이나 도시설계 같은 협소한 의미로 이해하여 단일 설계 용역으로 축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행복도시 도시계획은 수도이전의 비전, 기본방향, 공간 및 토지이용 계획과 부문별 계획, 재원계획 등 모든 활동의 준거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 지식 모듈'은 행복도시 계획의 절차와 종류, 내용의 종합 지침이며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해외 국가에서 컨설팅 수요가 높은 분야로, 수도이전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으로 추진 가치가 높다.

● 해외국가 수도이전 현황과 협력과제

행복청과 행복도시 건설경험 교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몽골, 인도네시아, 이집트의 수도이전 협력을 위해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를 대입하고 필요한 국제협력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 3] 몽골, 인도네시아, 이집트의 수도이전 추진 현황 분석



주: 파란색 원형 점선은 수도이전 진행 단계, 빨간 글씨는 협력국의 수도이전 추진 원로 진행 사항, 녹색 음영은 협력국의 수업을 의미함.

자료: 방설아 외, 2023.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 4P. 국토정책 Brief, 세종: 국토연구원

우선 몽골은 2020년 5월에 장기발전정책 '비전 2050'에 신수도 추진과 오르혼벨리에 신(新) 하르호린 도시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수도이전 초기의 준비 및 계획단계에 있으며, 이 시기에는 특별법을 제정, 수도 입지 선정과 타당성 확보, 토지수용 및 보상,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 및 공무원 이주의 지식화 모듈을 공

유할 수 있다. 특히 몽골은 수도이전 기본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 있으므로, '하르호린 신수도 건설 기본 계획 수립 정책컨설팅'같은 국제협력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신수도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2024년 8월 독립 79주년에 맞춰 누산타라라는 신수도 건설 1단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추진 법제화와 신수도청 설립, 도시 인프라 착공 등 초기 개발의 많은 부분이 진행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EIPP 및 ODA 등 컨설팅과 프로젝트를 통해 신수도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 사업과 연계한 2~3번째 건설단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특히 신수도의 기능 확보를 위한 정부 부처 이전과 공무원 이주, 이를 위한 제도적 보상과 정주 환경 조성 등 2024년 1차 완공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이 필요하다.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에 대입해 보면, '공무원 이주 지원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 '신수도 스마트도시 조성계획 및 실증사업(민간연계형)' 등의 협력과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는 2016년에 국가개발계획인 '이집트 비전 2030(Egypt's Vision 2030)'에 경제개발을 위한 전략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신행정수도(New Administrative Capital) 건설을 발표했다. 이집트는 도시 건설 1단계 종료 후 2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이며, 세 국가 중 수도이전 사업 진행이 가장 앞서있다. 최대 700만 명 인구수용을 목표로 건설 2단계에 도입하였고 스마트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자족 및 광역지역 상생을 위한 개발 수요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신수도 내에 저소득층을 위한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이나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이집트 신수도 개발을 위한 협력

과제로는 신수도 건설청의 도시운영 역량강화, 신수도 공무원 정착 지원, 기존 수도인 카이로와 상생발전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및 스마트도시 구축 등 협력과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을 위한 추진방안 제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기반한 수도이전 국제협력은 해외국의 수요가 명확하고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인 패키지·대형화·브랜드화에 적합한 모델이므로, 우리나라의 해외 도시·인프라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발전시킬 가치가 높다. 따라서 행복도시 건설경험이 우리 내부의 역사적 기록에서 글로벌 협력을 위한 지식화 전환과 지적 자산 패키지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이전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조직구성 및 다부처 협력 강화를 제안한다. 우선 행복도시 건설경험의 지식화 패키지를 발전시켜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담당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해외국가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은 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체 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한 재원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전담조직이 구성되더라도 국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정부 부처의 재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협업이 필요하다. 행복도시 지식화는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경제발전공유사업(KSP) 및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과 성격을 같이 한다. 따라서 ODA 정책컨설팅, 기술협력,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연계와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수도이전 국제협력의 추진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2023/24 칠레 KSP

병원 대기 끝에 죽음이 아닌,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홍기현**
doublehk8272@kdi.re.kr

● 병원 대기자 명단 문제를 비롯한 칠레의 심각한 보건·의료 상황

2023년 6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약 2시간 떨어진 근교 도시 발파라이소의 한 주민은 생후 3개월이 된 아이가 심각한 폐렴 증세를 보이자 지역 내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다. 하지만 대기자 명단에 계류 중인 환자의 수가 너무 많아 결국 아이는 유명을 달리하였고 이 소식을 뉴스로 접한 칠레 국민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칠레 하원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위 사례와 같이 병원 대기자 명단에 계류하다가 비극을 맞이한 환자의 수는 무려 1만 477명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만 집계된 것이라는 데서 상황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칠레의 보건·의료 상황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가장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길고 가늘게 뻗어 있는 지리적인 환경과 부족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 인원·인프라¹⁾ 등으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기본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아플 때 의로서

비스 혜택을 즉시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또한 기존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를 유지하던 호흡기 질환자 수는 코로나19 이후에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외과 및 일반 분야의 진료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특히, 수술 및 전문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칠레 보리치 정부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 급증한 병원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대기자 명단 계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그림 1] 23/24 칠레 KSP 착수보고회



1 칠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3.6명) 대비 부족하며, 병상 수 역시 2.0개로 OECD 평균(4.5개)에 비해 부족함.



● 한국의 디지털 기술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경험·지식 공유 요청

칠레 하원의 보건위원회 소속 의원인 토마스 라고마르시노 (Tomas Lagomarsino) 의원은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에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요청하였다. 칠레 측은 보건·의료 내에서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특히, 보건·의료 체계에서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수요는 있으나 관련 인프라와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관련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칠레 측 수요에 한국 정부가 응하며 '2023/24 칠레 KSP 사업'이 시작되었다. 우선 칠레 측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 보건·의료계 전문가와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대 주제와 세부 주제를 선별하였다. 이후 칠레 정부 측과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칠레 측과 공유할 수 있는 역량과 분야를 <표 1>과 같이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었다. 2023년 8월, 공개 입찰을 통해 강북삼성병원 미래헬스케어추진본부가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11월 말에 착수보고회와 실태조사를 위한 출장을 추진하여 수행 기관 주도하에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림 2] 23/24 칠레 KSP 착수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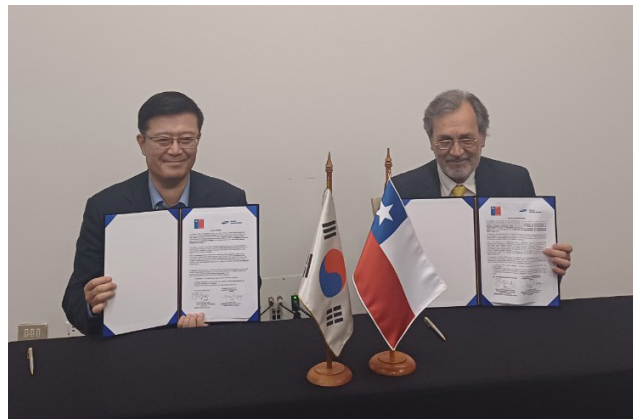
<표 1> 2023/24 칠레 KSP 대 주제 및 세부 주제

	주제명	내용
대 주제	칠레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병원 대기자 명단 문제 등 칠레가 직면한 보건·의료 관련 문제의 개선을 위해 한국의 디지털 기술 기반 관련 개선 경험과 지식을 공유
세부 주제 1	질병 예방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그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레 주요 사망 원인이 모두 만성질환과 관련되어 있으며, 칠레 내 만성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 모바일 헬스케어를 이용한 직장 건강관리, 지역사회 고위험관리 프로그램 도입 •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역사회 주민 교육자료 제공 • 칠레 발파라이소 등 특정 지역 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실증사업 모델 개발 방안 수립
세부 주제 2	아이티(IT) 기술을 활용한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 환자 관리의 질적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레의 공공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로 대기 환자 수가 증가하는데도 환자, 상병 분류가 수동으로 진행되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점과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에 대해 지적 •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중심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질환 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의료 공급 모형의 다양화 유도 • 국가필수의료보장제도프로그램 (AUGE-GES) 적용 의뢰서의 용어 통일 및 표준화·전산화 • 칠레 공공의료서비스의 환자 분류체계와 의료 환경을 분석하여 만성질환 환자를 관리하는 모델 설계

주제명	내용
세부 주제 3 1~3차 의료기관 협업 시스템 효율화로 대기 환자 감축 및 의료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료시스템(FONASA)과 민간의료시스템(ISAPRE)의 분리로 인한 공공의료서비스의 품질 저하, 국가 필수의료보장프로그램(GES)의 불명확한 환자 선별 과정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혜택이 제한되는 점을 지적 • 현재 보건 의료 상황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관리체계) 신설 혹은 개선(중앙정부부처) • 아이티(IT) 기술을 이용한 의료·회송 체계 구축 • 국내 원격의료 사례의 현지 적용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방안 수립

따라서 금번 칠레 KSP 사업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칠레가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보건·의료서비스 디지털화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측면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 제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쌓인다면 칠레 국민이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안타깝게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3] 23/24 칠레 KSP 착수보고회



철의 삼각과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계에 통용되는 ‘철의 삼각(Iron Triangle of Healthcare)²⁾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개념이자 기술이다. 칠레 정부도 철의 삼각의 한 축이자 칠레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디지털 헬스케어는 철의 삼각의 불균형을 바로잡거나 철의 삼각형의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의료 비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 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의료접근성 개선도 관련 기술과 혁신과 연계된 법·제도 체계의 뒷받침이 없다면, 개선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2 경제학에서 쓰이는 불가능성의 정리에서 파생된 용어. 보건·의료계의 한정된 자원의 제약 때문에 동시 달성될 수 없는 철의 삼각형으로서 ‘의료의 질, 의료 비용, 의료 접근성’, 이 3가지 요소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ESG,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역할 및 정책과제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실장 김대용
dykin@kdi.re.kr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연구원 황서영
syhwang@kdi.re.kr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목표 17개와 세부 목표 169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불평등 해소, 빈곤 퇴치 등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 지구적 목표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전 지구적 목표로 설정된 바 있다. SDGs와 ESG는 지속가능성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세부적으로는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유사하므로 양자 간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ESG 및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며 한국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본 연구는 글로벌 동향과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AfT-ESG-SDGs 간의 상호연계성을 검토하고 SDGs와 경제성장, AfT와 ESG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글로벌 기업의 대(對)개발도상국 ESG 현장 사례를 조사하여 해당 활동이 개발도상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경제성장이라는 관점에서 AfT가 미치는 영향을 ESG

국가별 그룹으로 구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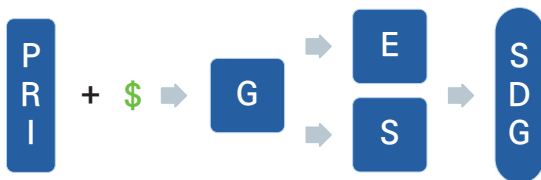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의의 AfT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AfT의 핵심 가치의 변화는 다양한 분야(글로벌 가치사슬, 디지털 역량 강화, 성평등, 기후변화 및 보건 등)를 포괄하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이에 AfT를 실행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SDGs 세부 목표와 ESG의 달성에 기여한다.

둘째, SDGs와 ESG는 상호 보완적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우선 세계은행의 ODA 데이터 중에서 ESG를 대변하는 변수 40개를 파악한 후 이를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각 항목에 매칭하는 작업을 통해 상호 보완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변수의 세부 항목 간에는 상호 보완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분석 대상 10개국(요르단, 모로코, 케냐,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터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베트남)에 지원된 광의의 AfT(ODA)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변수로 실증분석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두 변수 간의 상관

관계가 높게 확인된다. 즉,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글로벌 기업의 개발도상국 내 ESG 활동이 개발도상국의 SDGs 세부 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의견을 뒷받침한다. 특히, ODA와 개발도상국의 수출량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여기서 선진국과의 교역량 증가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주도의 글로벌공급망(GVC)에 편입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글로벌 기업(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개발도상국 내 Aft와 연계된 ESG 수행 사례를 살펴보면 ESG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광의의 Aft(ODA)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ESG 경영, 즉 Aft를 통한 개발도상국 기업의 GVC 편입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SDGs 세부 목표와 부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글로벌 기업이 개발도상국 내 ESG 활동을 지속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는 기업의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06년 UN 책임투자원칙이 도입되면서 주요 기관의 투자자에게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투자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결국 책임투자원칙하에서 기업의 ESG 활동은 장기적 이익을 위해 외면할 수 없는 요소가 된 것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PRI-ESG-SDGs 연계 및 흐름



자료: 저자작성

광의의 Aft(ODA)와 ESG 세부 항목 간의 상관관계 및 유의한 인과관계, 특히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에 해당하는 변수 대부분이 ODA에 대해 직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ESG 실천을 통해 개발원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경제성장 목표뿐만 아니라 SDGs의 달성과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행 주체의 미스매치 문제의 경우 기업은 사적 재화의 생산 주체로서 ESG를 통해, 정부는 공적 재화의 공급자로서 SDGs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적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 참조).

[그림 2] SDGs-Aft-ESG 경로 및 연계성



자료: 저자작성

본 연구가 SDGs와 ESG, Aft 간의 상호연계성과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 첫 사례인 만큼 향후 ESG와 개발원조(혹은 Aft)의 관계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ODA와 ESG 간 연계성 검토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ESG가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까지 견인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경로나 요인 등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ESG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ODA가 지향하는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 기업의 대외적 ESG를 유도하고 이를 Aft와 적절히 연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YKSP 7기 출장 소회 인터뷰



23/24 우즈베키스탄 YKSP
박하영

parkhaeyong.01y@gmail.com



23/24 슬로바키아 YKSP
허원형

overheo@snu.ac.kr

[그림 1] 23/24 슬로바키아 착수보고회



🇰🇷 본인의 경험과 관련하여 YKSP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 박하영 | 국제학과에 진학한 후, 국제개발협력 관련 강의를 수강하며 해당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SP는 정부 간 정책 제언을 통해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저에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실무를 경험하며 개발협력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쌓기 위해 본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 허원형 |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서포터스 20기로 활동하며 KSP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KSP가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을 제언하며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멘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지식의 가치와 전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멘토의 역할에 대해 많이 고민해 온 교육 학도로서 그 가치에 깊이 공감하여 KSP의 실제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YKSP에 지원했습니다.

23/24년 KSP 우즈베키스탄 중간보고회 및 정책 실무자 연수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출장 기간 전후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나요?

박하영 | 중간보고회는 현지 고위 정책 결정자와 현지 전문가, 정책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협력국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중간보고회의 회의록 작성 및 녹취, 사진 촬영을 담당했습니다.

허원행 | 출장 전에는 출장 점검 회의에 참여하여 출장의 전반적인 일정과 핵심 목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연구원님께 전달받은 YKSP의 과업을 다시 점검하였습니다. 출장 후에는 출장 중 기록한 회의 내용을 복기하며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연구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출장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은 어떤가요?

박하영 | 출장 기간에 수석 고문님, 과제 연구자 그리고 KDI 연구원님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끊임없이 질의응답을 반복하며 연구 내용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이번 YKSP 활동을 하는 동안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다만 개발협력 생태계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원행 | 너무나도 감사한 일주일이었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이런 사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주신 KDI에도, 출장 기간 내내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출장진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시간을 앞으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출장을 다녀오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회의나 면담 중에서 기억에 남은 순간 등)은 무엇인가요?

박하영 | 이번 출장을 통해 정책 제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급변하는 금융 정책과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연구 방법과 방향성을 점검하는 과제 연구자분들의 모습을 보며 정책 자문에서 문헌 검토만큼 중요한 것이 실무자와의 소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허원행 | 매일 공식 일정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할 때, 출장진이 앞으로의 정책 실무자 연수와 관련된 열띤 논의를 펼치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업 전반에서 대화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 향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YKSP 활동에 대한 다짐 및 YKSP 활동을 통해 얻고 싶은 것 등)이 있나요?

박하영 | YKSP 활동은 제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분야 및 직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남은 기간에도 YKSP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며 인턴으로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허원행 | YKSP로서 참여한 출장 기간 일주일만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이 있는 세계 현재 어떤 점이 부족한지, 또 앞으로 어떤 점을 배워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출장 중 느낀 점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23/24 슬로바키아 KSP는 이제 최종 보고회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참여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

행사

KDI-세계은행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을 위한 세미나 개최

한국개발연구원 개발연구실 노다현 전문연구원
dh_noh@kdi.re.kr

[그림 1] 2024 녹색성장 세미나 개최회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와 세계은행은 2024년 2월 28일 미국 워싱턴 D.C(DC) 세계은행 본부에서 '지속가능한 녹색전환 촉진(Fostering Sustainable Transitions)'을 주제로 '2024 녹색성장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KDI와 세계은행이 지난 수년간 녹색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연구와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미주개발은행(IDB)을 비롯해 워싱턴 D.C에 소재한 대학과 연구소에서 1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개회식에서는 이종규 KDI 부원장, 박일영 세계은행 상임이사, 리처드 다마니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식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 '지속가능한 녹색전환 전략'에서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한국의 녹색전환 전략 로드맵: 도전과 방향'을 발표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케빈 캐리(Kevin Carey) 세계은행 기후경제프로그램 매니저는 '저탄소 전환과 거시경제 정책의 조화'를 주제로 탈탄소 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단기적/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행사

[그림 2] 발표연설, Stefanie Onder, American University



이어진 두 번째 세션, '녹색전환 정책의 효과적 이행'에서 김현석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실장이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취약성'을 주제로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지역별 취약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취약한 지역의 전환 지원을 위한 지표 구축, 지원 체계 마련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낸시 그레이스(Nancy L. Gracia) 세계은행 선임 경제학자가 중남미 지역 사례를 통해 녹색전환에 있어 지역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크 로버트(Mark Roberts) 세계은행 선임 도시경제학자는 전 세계 도시 데이터 분석 결과와 녹색도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테파니에 온더(Stefanie Onder) 아메리칸대학 조교수는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 국가경제회계 시스템에 자연자본의 가치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세 번째 세션인 '녹색전환 금융'에서는 윤여창 KDI 연구위원이 '한국의 탄소가격 메커니즘 강화'를 주제로 한국의 배출권거래 시장과 탄소세 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안 패리(Ian Parry) IMF 전문가는 '아시아 국가의 탄소가격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국제탄소가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스키아 더프리스(Saskia de Vries) 세계은행 매니저는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분야의 전략을 제안하고, 김서이 세계은행 기후금융 전문가는 개발도상국의 탄소시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은행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그림 3] 발표연설, Gracelin Baskaran, CSIS



마지막 세션인 '녹색전환과 국제연구의 시사점'에서는 녹색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내용과 관점이 공유되었다. 임희현 KDI 연구위원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한국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 연구 '탄소중립정책의 영향: 무역과 환경을 중심으로'의 결과와 주요 시사점을 공유하였으며, 애셰시 프라산(Ashesh Prasann) 세계은행 선임 농업경제학자는 '농식품 분야에서의 넷제로 달성'을 주제로 농식품 분야의 탄소배출 저감 방안을 발표했다. 그레셀린 바스카란(Gracelin Baskaran)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위원은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기술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는 주요 광물자원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에 주목하였으며, 옹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대된 비대면 경제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내용을 공유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KDI와 세계은행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녹색성장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2024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계획



국제개발협력연구

#	과제명	주요내용
I. 개발협력 정책연구		
1	지식공유사업의 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공유사업의 위상 및 사업실적과 성과 평가 ■ 지식공유사업 수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대내외 도전요인을 점검 및 내부 개선 ■ 사항을 도출 및 후속조치 방안 마련 및 제시 ■ 해외 국제개발협력 및 연구기관 조사 및 선진 사례 발굴 ■ 지식공유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도출
2	개발도상국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지식공유사업의 역할 및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문별로 산업기술혁신 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 ■ 한국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경제상황과 성장단계에 맞게 자생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산업기술혁신 표준모델(K-Innovation)”구축
3	뉴노멀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환경·에너지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개도국의 정책 분석 ■ 선진국-개도국간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선진국-개도국간 기후금융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에너지 전환의 효과성 분석 : 한국의 경험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청정에너지 · 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 분야 협력방안
4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술협력 역할과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배경 및 주요국의 전략 분석 ■ 한국의 공급망 구조 및 노출도 분석 ■ 핵심광물 확보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협력 관련 시사점 도출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협력의 역할 및 방향성 모색
II. 한국발전경험 체계화 연구		
5	중진국 함정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지식공유사업에의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이 중소득국 단계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경쟁, 기술혁신, 고등교육)을 당시의 정책적 과제와 시행착오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한 시사점 도출
6	개발금융 경험 체계화 및 지식공유 고도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금융 관련 최근 동향 및 주요 의제 ■ 선진국의 개발금융 파트너십과 지원 전략 ■ 개발금융기관의 개발도상국 지원 효과 ■ 개발도상국의 개발금융기관 역량강화 체계화 방안 ■ 개발금융을 활용한 지식공유 고도화 전략
III. 개발협력성과평가 연구		
7	국제개발협력의 유형별 성과지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선진공여국 및 공여기관 성과 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검토, KSP 사업에의 시사점 도출, 평가의 디지털 전환 방안 모색 ■ 지식기반 개발협력 평가체계 구축 및 사례 분석
IV. 지역·국가 심층연구		
8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P 사례 기반을 기반으로 협력국 및 분야를 선정하여 △정책·제도 현황 분석, △정책·제도 협력 사례 조사, △정책·사업 시사점 도출 및 제시 <p><small>*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말레이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페루 보건분야 디지털 전환, 중남미 국가 순환경제 전환 등</small></p>

9	디지털 무역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무역을 통한 개발(Digital Trade for Development) 관련 국제 논의 및 도전과제 분석 ■ 디지털무역 협정 분석 및 협력의제 유형화 및 체계화 ■ 디지털무역 관련 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 조사 ■ 디지털무역 원활화 및 개발도상국 디지털무역 발전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과제와 추진방향 제시
---	--------------------	---

국제협력사업

#	과제명	주요내용
I. 개발협력 정책연구		
1	아시아생산성기구 (AP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리랑카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스리랑카 국가 생산성 현황 분석 국가 생산성 제고 전략 및 액션플랜 개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5 기후변화 관련 APO 회원국 생산성 분석,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제 및 시사점 제시
3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 자문 주요 정책 분야 연구 및 정책자문

국제행사

#	과제명	주요내용
I. 개발협력 정책연구		
1	세계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세계은행 녹색성장세미나 일시/장소: 2024년 2월 28일/워싱턴D.C. 주제: Green Transition Strategy, Green Transition Financing, Carbon Pricing 등
2	브루킹스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Brookings Joint Seminar 일시/장소: 2024년 10월 22일(예정)/워싱턴D.C. 주제: Digital Technology, Inequality, and Global Economic Convergence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글로벌 포럼 일시/장소: 2024년 11월(예정) 주제: 미정

2024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요 연구 및 협력 실적



국제개발협력연구

연도	연구명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3: 협력국 사례연구 ■ SDGs 실현을 위한 ESG,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역할 및 정책과제 ■ 탈탄소 기술 품목의 무역저해요인 분석 및 지식공유에의 시사점 ■ 아프리카 지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국제개발협력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보건·의료 편 ■ 글로벌 공급망 확대 및 핵심자원 확보를 고려한 자원 부국과의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추진전략 ■ 중동부 유럽 지식공유 협력전략 ■ ESG 실현을 위한 공공 거버넌스와 역할 ■ 국제개발협력의 ESG 가이드라인 정책연구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2: 뉴노멀시대의 스마트정책 사례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디지털 편 ■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를 위한 정책과제 ■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통한 국내외 청년의 글로벌 기회 확대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1: 연결성과 개발협력 ■ 중미공동시장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중미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 개발협력 지식관리 체계화 연구: 데이터 현황과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국제개발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산업 무역구조 분석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0: 혁신과 국제개발협력 ■ 지식공유사업을 위한 개발도상국 발전제약요인 진단 ■ 중남미지식공유사업 협력전략: 주요 국가 및 분야 ■ 중국의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사례 ■ Policy Responses to COVID-19 in Korea ■ 주요 선진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개편 연구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19 ■ 한국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제도의 20년 평가 및 개발협력과 연계방안 ■ Contemporary Economic and Social Policy for Inclusive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ring Knowledge, Sharing the Future 2018 ■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협력 방안 ■ 민간-공공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현황과 과제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e Studies on Public Policy in Korea for Knowledge Sharing ■ 지역별 발전현황 진단 및 KSP 추진전략 연구 ■ 개발협력 전략연구: 미얀마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제개발협력기관 지식공유사업 현황 연구

연도	연구명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천년개발목표의 교훈과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의 함의 ■ Post-2015 Development Agenda: Goals, Targets and Indicators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ing Knowledge Exchange for Capacity Development: What Works in Global Practice? ■ Korean Development, 1973-84: A World Bank Economist Remembers and Reflects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titutional Innovations for Consultation and Outreach: Making the G20 More Responsive and Effective ■ Toward the Consolidation of the G20 : From Crisis Committee to Global Steering Committee ■ Economic Growth in Low Income Countries: How the G20 Can Help to Raise and Sustain It ■ Knowledge Sharing Platform and Network for the G20

국제협력과 지식공유(Sharing Knowledge, Sharing the Future) (최근 3년)

연도	세부 내용
2023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3: 협력국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란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정책환경을 중심으로 ■ 불가리아 연구개발 현황과 시사점: 소피아테크파크 산학연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 세르비아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혁신기술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 신용보증제도 사업 기획 시사점: 베트남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2022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2: 뉴노멀시대의 스마트정책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 ■ 행정 ■ 재정 ■ 농업 ■ 생산 ■ 교육 ■ 헬스케어
2021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3: 협력국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인프라 및 서비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발전방안 ■ 에너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 교통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발전 방안 ■ 개발금융의 이해와 활용

국제협력사업

협력기관	연도	사업명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ADB I)	2023	■ Promoting Digitalization for Green and Inclusive Growth in Developing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개발은행(ADB)	2021	■ 스리랑카 국가개발계획 지원
아시아생산성기구(APO)	2023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4
	2022	■ 파키스탄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2022	■ 중고소득국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전환에 대한 정책연구
	2022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3
	2021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2

협력기관	연도	사업명
아시아생산성기구(APO)	2020	■ 베트남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2020	■ 라오스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세계은행(WB)	2021	■ COVID-19의 외국인고용허가제(EPS)에 대한 영향
	2019	■ 노동시장 수요변화에 따른 숙련도 제고 정책연구사업
	2019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3차(카메룬, 서부발칸)
	2018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2차(10개국 개별 사업 및 성장 모형, 공기업 개혁 연구)
	2017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1차(8개국 개별 사업 및 거시경제, 포괄적 성장 연구)
미주개발은행(IDB)	2021	■ IDB Invest 협력사업: 한국의 디지털 전환 및 생태계 연구
	2020	■ 라틴아메리카와의 한국 인프라 서비스 지식공유 및 공동연구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2022	■ 이집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연구 · 연구
	2018	■ EBRD-KDI 공동 민관협력(PPP) 지식공유 콘텐츠 개발사업
유엔개발계획(UNDP)	2017	■ KDI-UNDP 에티오피아 국가계획위원회(NPC) 15개년계획 정책자문 사업
적도기니 재정경제기획부	2019	■ 적도기니 국가개발계획 자문사업
아부다비 개발기금(ADFD)	2017	■ 아랍에미리트 ADFD 수출금융프로그램 타당성조사 사업

국제 행사

연도	연도	행사명 및 내용
2023	브루킹스 연구소	KDI-Brookings Joint Seminar 일시/장소: 2023년 4월 11일/워싱턴D.C. 주제: Productivity in a Time of Change
	-	ADB 연차총회 “한국 세미나의 날” 일시/장소: 2023년 5월 2일/ 인천 송도 주제: 아시아 복합위기 대응 방안, 글로벌 공급망개편과 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 코로나 19 이후 재정관리체계 등
	ADB	ADB 연차총회 부대행사 “KDI-ADB 공동세미나: 디지털, 기후, 그리고 회복력” 일시/장소: 2023년 5월 4일/ 인천 송도 주제: 디지털 전환과 기후 효과
	세계은행 TDLC	2023 KDI-WB TDLC 공동 글로벌 포럼 일시/장소: 2023년 11월 17일/ 인천 송도7 주제: 개발도상국 발전 제약요소 및 기회 분석, 도시 정책, 지식기반 발전 등
2023	-	2022 KDI 글로벌 포럼 일시/장소: 2022년 10월 21일/ 서울 주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디지털 정책 사례와 협력
2020	-	2020 KDI 글로벌 포럼 일시/장소: 11월 19일(목) 14:00~16:00/ 서울 주제: 개발을 위한 혁신 *기업과 혁신, 도시와 혁신, 기술과 혁신

과거 글로벌포럼 프로그램

2023년 글로벌 포럼

행사명: KDI-WB TDLC 지식공유 공동 글로벌 포럼

일 시: 2023년 11월 16일(목) 10:00~15:00 장 소: 일본 도쿄, 도쿄개발교육센터

시간	프로그램
개회식	
10:00-10:15	■ 개회사 Yasuaki Yoneyama 소장(세계은행 Tokyo 사무소) ■ 환영사 고영선 부원장(KDI)
10:15-10:25	■ 기초연설 Ming Zhang 국장(세계은행)
1부. 급변하는 시대에 따른 발전제약요소 및 기회 분석	
10:25-11:00	■ 발표 1 개발도상국 산업무역구조 분석 및 진단 김대용 실장(KDI) ■ 발표 2 개발협력 지식관리 체계화 연구 우혜영 팀장(KDI)
2부. 도시 미래 재구성	
11:00-11:3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 발표 1 정책사례가이드: 스마트시티 이상건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국토연) ■ 발표 2 개발도상국 스마트시티플랫폼모델 구축 제안 이주상 부사장(ESE)
11:30-12:00	친환경, 회복 및 포용적 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 발표 세계은행 국가 기후 및 발전보고서 Megha Mukim(세계은행)
3부. 지식 기반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13:00-13:50	■ 발표 1 지식과 역량강화의 중요성 Neil Ravena (필리핀 일로일로시 국장) ■ 발표 2 지식공유를 통한 프로젝트 개발 Mark Roberts(세계은행) ■ 발표 3 지식공유와 역량개발 김예림 팀장(KDI)
4부. 패널토론	
14:05-14:55	■ 시민들의 수요와 지식의 역할(좌장: 고영선 부원장, KDI) Megumi Muto(JICA 부총재) Shahina Myshan(스리랑카 콜롬보시 국장) Neil Ravena (필리핀 일로일로시 국장)
폐회식	
14:55-15:00	■ 폐회사 Ming Zhang 국장(세계은행)



2022년 글로벌 포럼

행사명: 2022 KDI 글로벌 포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디지털 정책 사례와 협력”



일 시: 2022년 11월 16일(목) 10:00~15:00 **장 소:** 서울 양재 엘타워

시간	프로그램 및 연사
08:30-09:30	■ 현장 최종 점검 및 현장 참석자 등록
개회행사	
09:30-09:35	■ 개회사 고영선 KDI 원장직무대행
09:35-09:50	■ 기조연설: “지속가능한 개발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Tetsushi Sonobe,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 소장
09:50-10:00	■ 사진촬영
특별세션: 아티지역 디지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와 방향	
10:00-10:10	■ 발표 1 호-아세안 디지털 무역 협력 전략 Ben Cas, 디지털 무역 및 신기술팀, 무역투자그룹,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보 대행
10:10-10:20	■ 발표 2 한-아세안 표준 협력 네트워크 이희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10:20-10:30	■ 발표 3 아세안 디지털 경제 협력 전략 Sivaram Superamanian, 아세안 사무국 디지털 경제과 과장
10:30-10:40	■ 휴식
주제발표: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정부와 산업의 역할	
10:40-10:50	■ 발표 1 그린·디지털 경제전환을 위한 법제화 - 스마트 그린산단을 중심으로 장은혜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0:50-11:00	■ 발표 2 글로벌 공급망의 기회와 위기 박건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11:00-11:10	■ 발표 3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헬스케어 분야 강화 방안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협력국의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방안	
좌장: 김정옥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11:10-11:20	■ 토론 1 협력국의 그린 경제 전환을 위한 지식공유 방안 최지영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 과장
11:20-11:30	■ 토론 2 디지털 경제 전환(헬스케어 분야) 사례 및 협력 방안 Randi Munk, 보건&의료 참사관, 주한덴마크대사관
11:30-11:40	■ 토론 3 그린·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방안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11:40-12:00	■ 질의응답(특별세션 및 주제발표자) 및 폐회
12:00-13:00	■ 오찬 및 행사 종료

KDI CID 지식공유브리프 발간지 목록

<p>2023년 특별호</p> <p>▶</p>	<p>2023년 지식공유브리프 특별호를 기획하며 / 김정욱</p> <p>이슈톡 2023년 국제개발협력을 되돌아보며 / 김은주 2024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발금융의 역할 / 권율 ▶ 기술협력 ODA,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 방호경 · 이소희</p> <p>동향 분석 2023년 동남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전망 / 이요한 ▶ 2023년 아프리카 ODA의 주요 특징 및 전망 / 김은경 ▶ 2023년 중남미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과 전망 / 정상희 ▶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일본의 개발협력 과제와 새로운 대응: 2023년 개발협력대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 김은지 ▶</p> <p>KSP 포커스 페루 경제특구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로드맵 수립 / 윤근영</p> <p>CID 연구포커스 탈탄소 기술 품목의 무역저해요인 분석 및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시사점 / 방호경</p>
<p>2023년 3호</p> <p>▶</p>	<p>이슈톡 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개발협력 전략 / 김연규 해외건설기업 진출현황 및 시사점 / 정창구</p> <p>동향 분석 국제협력 플랫폼, KSP의 의미 / 이미연 유럽연합의 개발도상국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 오정은 ▶</p> <p>KSP 포커스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KSP 사업 선정의 현황과 과제 / 이세훈 베트남 창업생태계의 현주소와 단기적 개선 방안 / 서규혁</p> <p>CID 연구포커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디지털 편 / 이진이</p>
<p>2023년 2호</p> <p>▶</p>	<p>이슈톡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사후관리가 왜 중요한가? / 안충영 ▶ ESG 연계 개발협력과 민간기업의 참여 / 이준희 ▶</p> <p>동향 분석 기술협력사업의 PDM 활용 개선방안: 지식공유사업을 중심으로 / 강경재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과 스마트 헬스케어 / 김준</p> <p>KSP 포커스 KSP 주제분류체계 개편 배경 및 주요내용 / 노보배 [우즈베키스탄 KSP+]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 한재현</p> <p>CID 연구포커스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확대를 통한 국내외 청년의 글로벌 기회 확대 / 우혜영</p>
<p>2023년 1호</p> <p>▶</p>	<p>이슈톡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 / 임호열 ▶ 글로벌 불황에 대한 안정망, 국제개발협력 / 성한경</p> <p>동향 분석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개발협력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 / 김은주 ▶ 스마트 생산 분야의 개도국 정책자문 수요와 정책 제언 방향 / 이재광 ▶ COP 27 손실과 피해의 주요 합의사항 / 황금물결</p> <p>KSP 포커스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핀테크 육성 / 유성희</p> <p>CID 연구포커스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를 위한 정책과제 / 김대용, 이소희</p>

<p>2022년 3호</p> <p></p>	<p>이슈톡 개도국의 혁신투자는 다다익선인가? / 정성철  우리나라 '정책자문 ODA 사업'의 과제와 방향성 / 김성규 </p> <p>동향 분석 개발협력평가와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가능성과 도전과제 / 홍문숙 아프리카의 정당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효과적 재정지원 방안 / 김유나, 홍은선</p> <p>CID 연구포커스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 김정옥, 윤지희 중미공동시장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중미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 방호경</p>
<p>2022년 2호</p> <p></p>	<p>이슈톡 세계 식량 위기와 국제개발협력 / 이준원 포스트-코로나 세계에서의 KSP의 중요성 / 윤석현</p> <p>동향 분석 COVID-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ODA / 김지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과 비시장 접근법 논의 동향 / 황금물결 </p> <p>KSP, EIPP 포커스 [불가리아 KSP] 디지털 혁신산업단지로의 전환 전략 수립 / 한재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추진 배경 및 특징 / 김하아람</p> <p>CID 연구포커스 연결성과 국제개발협력 / 홍성창</p> <p>YKSP 스토리/CID 소식 YKSP, 그것이 알고 싶다 / 이태연</p>
<p>2022년 1호</p> <p></p>	<p>이슈톡 국제개발협력의 본질과 한국 개발협력체계 발전방향 / 정혁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의 도래가 한국 개발협력에 던지는 함의와 과제 / 김양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법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으로의 전환 / 장은혜</p> <p>동향 분석 KSP 고도화 전략과 지식공유사업법(가칭) / 홍성창, 김서영, 이미연 국제탄소시장과 ODA 활용 동향 / 김예림</p> <p>KSP, EIPP 포커스 [페루 KSP] FTA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활용으로, 페루에게 전하는 한국의 경험 / 김지원 · 윤근영 [세르비아 KSP] 도시개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송지은</p> <p>CID 연구포커스 2021 CID 국제개발협력 연구 / 우혜영</p>

 는 KDI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해당 게시판으로 연결,  의 경우 해당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됨.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식공유브리프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원고 기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원고료가 있습니다)

| 문의 김다오미 연구원(044-550-4276, kdom228@kdi.re.kr)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발행 KDI 국제개발협력센터(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 발행인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편집장 방호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전문위원

| 편집위원 김대용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 김민정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총괄

| 편집간사 김다오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연구원

| 문의 044-550-4276, 044-550-4280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